

금호건설, 정보화로 승부한다

금호건설(주)은 건축, 토목, 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외사업, SOC사업, 환경사업 등 고부가치가 신 규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품질경영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을 창조적으로 재배치하여 고객의 신뢰속에 초일류로 평가받는 동시에 도전의식과 개혁정신의 발휘로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신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21세기 인류행복을 추구하는 세계속의 초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신사 옥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금호건설을 취재했다. <취재/박병기 기자>

금호, 수도권에서 재건축사업 잇따라 수주

금호건설(대표 이서형)이 최근 서울 수도권에서 잇따라 중소형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수주하면서 재건축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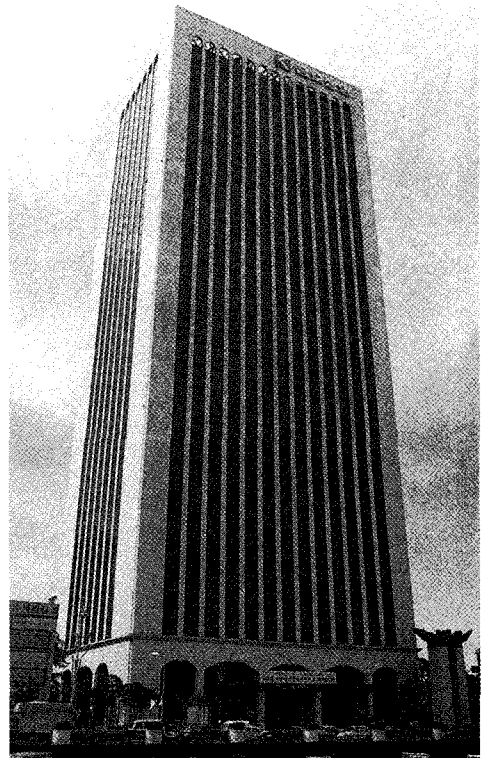
금호는 지난 달 10일 경기 광명 시 광명동의 광명연립 재건축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은 대지 4,668 평에 19~47평형 아파트 529가구를 새로 짓는 것이다.

이중 조합원분 213가구를 제외한 316가구를 내년 6월쯤 평당 420만~490만원에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평형은 19평형 40가구를 비롯해 22평형 155가구, 32평형 306가구, 47평형 28가구 등이며 첨단 고품질 아파트로 건설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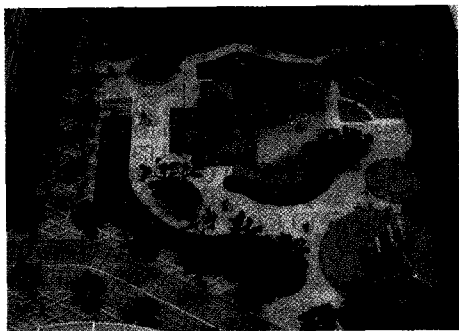
금호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서울 마장동 331의 2에 들어서는 4,491평 규모의 범우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369가구(24~41평형)를 건설하며 조합분 29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79가구를 내년 4월에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호는 지난 10월에 서울 송정동 81의 12에 총 60가구의 송정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33, 43평형 60가구로 이뤄진 초소형 단지로 내년초 쯤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호는 대형단지 재건축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참여를 모색하는데 이어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재건축은 내실 위주로 수주에 나선



금호생명 사옥 전경



한국적 테마공간을 창출하는 금호베스트빌 근경조감도

다는 공격적 수주전략을 수립, 귀추가 주목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김해경전철 사업 수주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최대 관건인 사업기간을 축소하고, 현실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과 윈-윈 전략 효과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건설은 여의도 63빌딩 옆에 지상 40층짜리 2개동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일대 옛 라이프빌딩 부지 2,100평에 지하6층 지상 40층짜리 2개동의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39~98평형짜리 아파트 230가구와 오피스텔 200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아파트는 평형별로 39평형 27가구, 49평형 54가구, 51평형 35가구, 55평형 54가구, 62평형 58가구, 98평형 2가구 등이며 평

당 분양가는 1,200만~1,300만원선인데 금호는 내년 2월 착공한 뒤 3월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중앙건설이 추진해오던 것으로 최근 금호에서 인수했다. 금호는 특히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친화형 아파트, 금호베스트빌

베스트빌은 금호가 만드는 고품격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이다. 베스트빌은 인간친화형 아파트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이 아파트에는 미팅룸, 락커룸, 정보교환실 등이 마련된 고급스런 분위기의 호텔식 로비와 넓고 시원스런 1층 주출입구, 지진에 안전한 내진설계, 스카이라운지와 헬스룸 같은 공동생활공간 등 인간친화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이와 함께 1층 세대에 전용출입로와 전용현관, 전용정원 및 지하창고 할당, 최상층 세대는 옥상정원과 다락설치, 거실경사형 천정 및 천창 설치로 어느 층에서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아울러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방지하는 차음바닥과 완벽한 외벽단열, 바이오 맥반석 몰탈, 참숯 바닥재, 참숯 초배지, 무공해 천연페인트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며 효율적인 공간활용, 편리하고 넉넉한 수납시스템, 주부의 하루를 꼼꼼히 배려한 가사작업공간, 효율적인 동선은 보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지하주차공간을 보다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 지상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단지 전체를 공원화하고 고향에 되돌아온 듯 아늑하고 편안한 단지, 옛동산의 오솔길같은 아기자기한 산책로와 운동시설, 쌈지마당, 휴게동산 등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주민교류의 장소를 조성하여 이웃을 더욱 가



금호건설이 시공한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전경

깝게 한다.

또한 안전하고 EQ향상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성장발달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베스트빌이 바꾸는 주방문화

예전 전통적인 한국의 주방은 여자들만이 드나들며 순수하게 음식을 장만하거나 밥 짓는 곳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초부터 아파트라는 서구식 주거문화가 보급되면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옆에 식사공간이 마련되었고 점차 가족간의 대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변해왔으며 오늘날에는 거실과의 관계가 서로 깊어지면서 주방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거생활에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에 금호베스트빌은 좀더 편리하고 기능적인 주방에서의 생활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방가구의 인체공학적인 공간설계를 통해 주부의 작업동선을 짧게, 가사노동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수적으로는 기본장이외에 양념통 등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인출식 망 서랍장, 수납기능을 강화한 인출식 키보드장, 높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리프트장, 쌀통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작업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감안했다. 또한 주방 후면 발코니에는 냄새나는 음식을 할 경우나 주방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위해 보조 주방가구를 설치하여 가사공간을 극대

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방가구의 소재를 고급화했다. 고급스러운 색상이나 천연목재의 느낌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공법을 개발하고 인조대리석과 같이 각종 오염과 세균번식, 화기에 강한 소재를 썩크대 상판으로 사용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항상 처음처럼 깔끔하고 변형이 없는 주방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리고 주방을 한결 여유롭고 즐겁게 해주는 설비와 시설을 개발했다. 식기세척기와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 등 주방에 필요한 각종 가전제품을 주방가구와 함께 미리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부의 생활을 배려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단란한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의 분주한 생활로 서로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식사시간으로 한정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식당이 가족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일자형이나 ㄱ자형의 배치를 벗어나 가족과 마주하며 요리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식 배치, 홈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주방공간을 제공한다.



전남 여수 신월동 금호베스트빌 전경

금호베스트빌이 펼쳐주는 테크노피아

한편 금호베스트빌은 21세기의 생활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추구한다. 금호는 초고속 정보통신 주택컴퓨터, 화상전화기, 인터넷 TV 등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초고속 정보통신 주택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의료진료 등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경비시스템 및 차

량통제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단지 외곽까지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내 전세대에서 한국 무궁화 위성, 일본 NHK, 홍콩 STAR TV를 시청 할 수 있고 각 세대의 TV를 통하여 공지사항을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검침 등은 생활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검침

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욕실 스피커폰을 설치하고 있으며, 예약된 시간에 조명을 끌 수 있고 알람 기능까지 갖춘 조명기구 원격제어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금호, 건설정보화 선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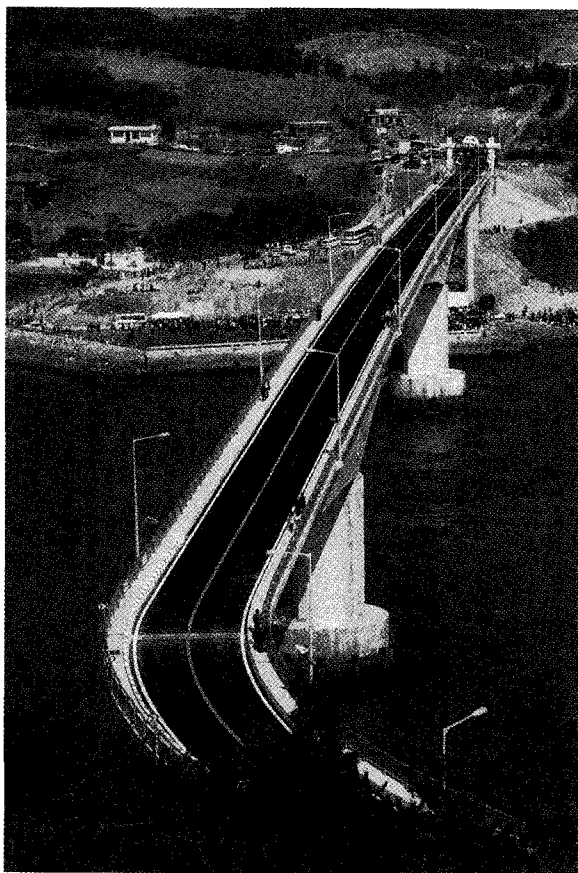
금호건설의 한 아파트 현장. 이곳의 현장 소장은 아침 7시에 현장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밤새 종합설계팀에서 설계변경한 내용과 자재구매팀의 자재구매정보와 상세한 납품일정 등을 체크하며 하루의 공사관리계획을 잡는다.

이어 자재, 장비활용 현황을 체크한 뒤 잉여가설재가 필요한 현장을 수소문하는 한편 인근현장의 잉여자재, 장비지원을 인터넷망을 통해 요청한다. 그리고 8시에는 본사의 공사관리본부장과의 화상 회의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각 세대에 방법 및 방재 경보기능, 유무선 전화기능, 비디오폰을 설치해 주며 주방에 TV, 라디오, 전화, 비디오폰 기능의 액정 TV를 설치하고 있다.

금호건설이 올 연말이면 구축하게 되는 인터넷 현장관리시스템 하에서 현장소장이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상황을 꾸며본 것이다. 금호건설은 미래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정보화에 달렸다는 인식하에 90년대 초반이후 본격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지난 98년말 업계 처음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외주입찰정보시스



전남 고흥군 소재 외나로도 와 내나로도를 연결하는 나로도 연도교 전경

템을 자체개발, 아셈갤러리아현장 방수공사의 입찰을 시행했으며 그 이후 자재구매시스템, 현장·안전관리시스템을 속속 개발해 냈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활용하고 있는 B2B기반의 자재구매시스템은 상반기동안 260건에 153억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방문 및 서류입찰방식에 비해 전체금액의 5.3%인 5억 3천여만의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됨으로써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도 영업비용, 물류비용 등 약 4억 9천여만을 절약, 자재구매시스템의 혜택을 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아직도 대부분의 중견·중소업체들이 애용하고 있는 자재구매를 위한 방문 및 서류입찰의 경우 현장설명, 입찰, 계약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도면과 시방이 많이 첨부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일부계약이 없지 않으나 방문절차를 인터넷으로 대체, 자재공급자나 구매자 모두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자재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소요계획을 세울 수 있어 생산일정 및 재고관리비용을 줄이고 이는 가격인하로 이어져 쌍방간에 이득이 있다고 금호건설은 설명했다.

금호건설은 이밖에도 올 연말 구축목표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이중 현장관리시스템의 경우 앞에서 가상의 현장 소장처럼 인터넷상에서 현장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종합설계팀 및 관련팀과의 화상회의를 실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과거 반세기 개발연대를 지나오며 우리 건설산업의 이미지로 각인된 '노가다' 스타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금호건설의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 안전관리시스템은 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주요안전관련 내용이나 특별단속 관련사항, 법규 및 지침 실무, 타현장의 중대재해 속보, 우수 및 불량사례는 물론 '환경관리'란을 통해 환경부문에 대한 목표관리도 집중 시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금호건설의 이같은 환경안전시스템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다.

이서형 금호건설 사장은 "이미 시행중인 입찰·계약·현장관리 단계의 전자문서교환체제는 물론 멀티미디어 표준화, 통합데이터베이스망 및 초고속 통신망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으로써 건설 CALS/EC를 선도하는 회사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종국적으로 B2B 등 마케팅역량, 기존 및 신규공사 수행역량 등 건설회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셈 컨벤션센터 전경

안전관리시스템도 현장 근로자의 건강 및 생체리듬을 인터넷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사례나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게